

TDB 경기동향조사(전국) - 2025년 4월 조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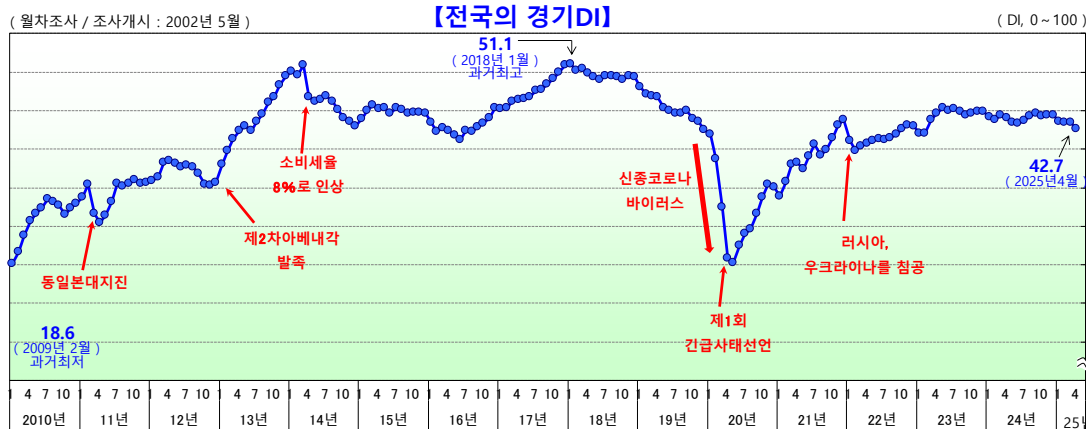
높아지는 트럼프 관세에 대한 경계심, 국내경기를 하락시켜

~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기는 약세로 추이할 전망 ~

(조사대상 2만 6,590사, 유효회답 1만 735사, 회답률 40.4%, 조사개시 2002년 5월)

조사결과와 포인트

1. 2025년 4월의 경기DI는 전월 대비 0.8포인트 감소한 42.7로 2개월 만에 악화, 코로나 중반에 해당하는 2023년 2월 이래의 수준까지 저하되었다. 「트럼프 관세」로 인한 자사 업적으로의 영향 및 장래 불안으로 개인소비도 좀처럼 늘지 않고, 체감경기가 급속히 얼어붙었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경기는 당분간 약세로 추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2. 10개 업계 중 9개 업계가 악화되었다. 트럼프 관세에 대한 경계심이 강하게 나타나 폭넓은 업종에서 체감경기를 하락시켰다. 지역별로도 『홋카이도』를 제외한 9개 지역이 악화되었다. 장래에 대한 불안으로 설비투자의 신중한 움직임이나 공사의 중지・연기 등이 지역을 불문하고 나타났다. 규모별로도 「대기업」「중소기업」「소규모기업」이 모두 악화되었다.
3. [이번달의 토픽스]트럼프 관세에 대하여 장래에 대한 불안 및 경계심이 높아지며 서서히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목소리가 다수 들려왔다.



< 2025년 4월의 동향 : 악화 >

2025년 4월의 경기 DI는 전월 대비 0.8포인트 감소한 42.7로 2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국내경기는 미국의 「트럼프 관세」로 인하여 자사 사업에 미칠 악영향 등 장래에 대한 불안으로 개인소비도 좀처럼 늘지 않고, 체감경기가 급속히 얼어붙었다.

4월은 트럼프 관세의 영향으로 금융시장이 심하게 요동쳐 장래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졌다. 규모나 업종・지역을 불문하고 체감경기가 악화되어, 특히 자동차・철강관련에서는 수출 정체가 눈에 띄었다. 해외경제의 감속 및 세관 수속의 혼란도 겹쳐져 물자이동은 저조하였다. 개인소비 빈약 및 원재료 가격의 고공행진도 역풍이 되었다. 한편 인바운드 수요는 견조로 추이하여 인력부족에 대응하는 업종은 안정되었다.

< 향후의 전망 : 약세로 추이 >

향후의 국내경기는 트럼프 쇼크의 영향을 지켜보는 가운데 실질임금 증가와 개인소비 회복이 열쇠가 될 것이다. 미중(美中) 등 해외경제 감속 및 세계 무역량 축소는 수출산업의 하락세 요인이 되며 환율동향, 가계의 절약정신도 우려 요소이다. 한편 계속된 인바운드, 감세 및 물가고 대책, 오사카・칸사이 엑스포, IT관련 설비투자가 지탱 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장기 연휴의 여행 수요도 주목된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경기는 당분간 약세로 추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